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Adolescent Children's Acceptance of Parents' Attitude and Performance in Home Education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하상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지금수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

Master : Sang Hee, Ha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Prof. : Keum Soo, Ch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their actual performance in home education and adolescent children's acceptance, and to inquire the difference in relation to social-demographic variables with the subject of family with teenage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ather's attitude and mothers in home educat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ather's attitude and mothers according to variables in each area.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ther's performance and mother's in home education. 3) Adolescent children's acceptance level was 3.26 (standard 5) and was aver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 children's acceptance level in accordance with parents' school careers, father's

job, child's sex and school record. 4)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performance in home education when father's attitude was confident attitude and situational attitude in education method, and when mother's attitude was confident attitude.

5) There were relationships only when father's attitude was confident attitude, and there were no relationships in other cases. 6)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erformance and adolescent children's acceptance.

1. 서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이며 가장 먼저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 가족 형태인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조부모나 부모, 일가친척, 형제 등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복잡한 산업 사회의 구조와 갈수록 증가하는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사회 활동 등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취업모들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도덕성의 부재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자아는 미성숙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의 탐구를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잘못 형성된 자아는 성인기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자아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건전한 환경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성수·권일남, 1994).

교육은 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정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교육의 형태로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비형식

적인 교육으로 개인간의 차이가 많고, 교육 내용이나 가정교육을 행하는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 문제, 학교 폭력, 가치관 혼돈, 비윤리적인 사회문제 등이 증가해 나가는 것은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것도 현대적인 것도 마련되지 못한 채 가정교육이 포기되어 왔기 때문이다(지영숙·이영호, 1997).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의 교육 문화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면서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소홀히 생각하고 또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직접,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는 사회와 더불어 가정교육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김충기·정채기, 1996). 특히,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은 무척 중요하다. 가정교육의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며, 자녀에게 수행하는 가정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의 효과는 내용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의 행동과 그것을 규정짓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교육 태도들중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녀 교육을 임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와 자녀가 수용하는 정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체계는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

는 부분들의 통합된 집합체로 체계에 대한 개념을 가족 전체에 맞추면 가족을 관리 체계로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임정민의, 1994). 즉, 부모의 태도를 투입요소로 보고 적절한 수행 과정을 통해 자녀의 가치 또는 표준의 변화 등에 대한 수용정도를 산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정교육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태도와 가정교육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나 수행도에 따라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하는지 조사해 봄으로써 가족체계내에서 부모와 자녀 하위체계간의 적절한 관리과정을 통해 자녀가 가정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아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성숙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경영을 위한 올바른 가정교육 태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짧은 기간으로 보통 12, 13세부터 20세 초반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동과 같이 의존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청소년기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안귀덕, 1989). 이 시기는 생식 기능과 이차적 성기관이 성숙되고, 이차적 성적 특징이 나타나는 급격한 생리적 성장기인 '사춘기'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급격한 신장과 체중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을 청년기 성장 급등(adolescent growth spurt)이라고 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과 더불어 인지적·정서적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확립, 자기 성에 적합한 성역할 습득,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 등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유가호·정옥분·조복희, 1997).

20세기 이전에는 청소년기가 하나의 발달 단계로

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대신 아동들은 사춘기를 통과한 후 곧바로 성인 세계 속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의 기간이 보다 길어졌으며 이 기간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 이유로서 우선 현대의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더욱 빨리 신체적으로 성숙하며, 사회적으로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해 교육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따라서 재정적으로 의존적인 시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이영·조연순, 1991). 청소년기의 사고는 전체적으로 왕성하고 논리적이며 추상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특성에 따른 비판적이고 독단적인 주관에 의해 부정적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며 정리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도해야 한다(성영혜·윤석희·이경화, 1994).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은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며(구본용, 1997),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조복희 외, 1997)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과연 어떠한 가정교육을 해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대의 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스럽고 자신감 없는 숙제가 되고 말았다(왕석순, 1997).

청소년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면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십대의 아이들은 마치 카멜레온 같다는 것이다. 성인처럼 행동하다가도 유치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큰 시기이다(이육·김향은·손화희, 1995). 도움을 주는 것은 방해하는 것으로, 충고는 자기를 휘두르려 하는 것으로 곡해하면서 자율이라는 것은 두렵긴 해도 이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누구든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되며 그래

서 10대의 부모들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다(이순일, 1994). 그러나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이나 규범 등의 내용과 달리 가정에서의 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활태도, 가족의 생활문화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의 주체자인 부모의 신념 있고 확실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Silverberg 와 Steinberg(1987)는 부모들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들보다 청소년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고 호소해 온다고 하였는데(유은희, 1998), 청소년기의 가정교육 내용은 아동기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아동기는 성격 형성의 단계로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교육, 올바른 습관을 익히는 일 등이 있었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인지적 능력인 형식적 조작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Salkind, 1981).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정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즉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먼저 들 수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접하게 되는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야말로 청소년의 인성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김동위, 1993). 청소년기 자녀를 지도할 때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보다는 10대 자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권위중(1991)은 청소년 자녀를 지도할 때는 제한하는 규칙의 수가 많지 않을 때, 가정 규칙에 대한 충분한 부모의 설명이 있을 때, 민주적인 부모일 때, 의사결정 과정에 자녀가 참여할 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친숙도나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을 행할 때는 부모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안에서 자녀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청소년기의 가정교육의 의의와 내용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가정은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는 장이며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필요한 모든 규범이나 가치, 태도, 행동 등이 습득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은 또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도 자녀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가정은 자녀를 현실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응(사회화)을 준비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부모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애정을 가지고 조화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올바른 정서의 발달과 인격 형성, 기본적인 인간 관계와 생활습관 터득, 언어, 도덕적 가치 등의 기초적 문화 습득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반복된 교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치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교육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혈육을 통한 애정을 매개체로 하여 교육작용이 이루어지므로 감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경애, 1988).

가정교육은 의도적으로 행하여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무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종합교육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이론적 내용보다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즉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의 태도이고 자신이 세운 기준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것을 위해 부모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지영숙·이영호, 1994).

3.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

태도는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학습의 기초이다. 이것은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고 학습의 조건으로서 지식·이해나 능력과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佳田和子, 1981). 또한 塩田芳久(1963)는 태도라는 개념을 일정한 행위 또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사상을 지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려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했다(佳田和子, 1981). 가정교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정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세나 의지 또는 생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교육의 효과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의 행동과 그것을 규정짓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교육이란 생활 속에서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지영숙·이영호, 1996).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선행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지영숙과 이영호(1994)에 의해 가정교육의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들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미혼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를 측정해 본 결과, 가정교육의 태도는 신념적 태도, 교육 방법상 상황적 태도, 그리고 회피적 태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신념적 태도란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자세나 의지가 확고하여 외부적인 상황 등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태도이며 상황적 태도는 교육방법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태도이며 회피적 태도는 가정교육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가정교육을 말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다’ 또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말없이 실행하는 편이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크고 부모의 행동이 「표준(標準)」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가치관 등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수행하여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행하는 가정교육 방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 견해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것으로서 의미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기는 어렵다(김덕순, 1982). 그러므로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자녀가 가정교육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수행이란 계획의 행동 과정을 실행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이기영·김유경, 1996). 왕석순(1996)은 가정교육의 수행도를 평상시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구체적인 가정교육 내용 각각에 대해 언어적으로 강조하거나 행동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지도·감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행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계획 등을 구체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해 실행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육의 수행은 의도적인 가정교육으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무의도적인 가정교육으로서 자녀가 부모를 모델로 삼아 스스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으므로 가정교육의 과정에서 부부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노력과 부모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육 수행도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왕석순(1996)이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또한 왕석순(1997)은 청소년기 자녀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를 위하여 총 10가지 영역으로 된 66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 영역은 가치관 교육으로 자립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 절제를 가르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번째 영역은 사회 공동체적 생활 교육으로 공익과 사회질서, 대인관계에서의 예의 등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번째 영역은 성교육 영역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번째 영역은 조상과 전통 생활 존중 교육으로 가문의 식과 가훈 등에 관하여 가르치는 항목이 중요한 내용으로 규명되었다. 다섯번째 영역은 부모-자녀 관계 교육으로 부모에 대한 예의나 존경,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번째 영역은 가족의 생

활 문화 교육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와 문화적 경향을 공유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번째 영역인 학습 지원 교육은 입시가 중요한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에서 가정에서 지원해야 할 여러가지 활동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번째 영역인 진로 선택 지원 교육은 본인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부모가 돕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홉번째 영역인 자기 생활 관리 교육에서는 흡연과 음주에 관한 자기 관리에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영역은 친구 관계 교육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가정교육 수용도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바람직한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왕석순(1996)은 가정교육의 수용도를 자녀가 그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구체적인 가정교육의 내용 각각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수행해도 자녀들이 수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귀찮은 잔소리로 생각하고 거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가 일관성 없이 행해진다 면 자녀의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학생의 연령에서부터 자녀들은 성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합리적인 인간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발심을 느끼고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여 이로 인해 자신의 성장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김덕순, 1982).

5. 가정교육과 관련된 변인들

가정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정환경(household environment), 근접환경(near environment), 광역환경(larger environment) 등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73). 이들 중 가족 그 자체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정환경 내의 여러가지 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 노릇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자식을 낳는 것보다 올바르게 키우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가정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덕순, 1982).

본 연구에서는 지위환경과 구조환경에 포함되는 여러 변인들 중 청소년 자녀의 가정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 변인 7가지, 즉 부모와 관련된 변인으로 학력과 직업, 연령, 수입, 자녀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과 성적, 그리고 가정의 외부적 환경 요인이 되는 가족 구성의 형태와 주택 소유 상황을 사회인구학적인 기본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가정교육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 청소년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어떠한가?
 - 1-1. 부모의 각 영역별 가정교육 태도는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는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3. 청소년기자녀의 가정교육수용도는 사회인구

학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와 청소년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부모의 각 영역별 가정교육 태도와 수행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2-2.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청소년자녀의 가정교육수용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2-3.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와 청소년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상관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가족원인 3인을 한 쌍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전주시내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총 400쌍(1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회수

되지 않은 58쌍(174부)과 자료가 부실한 28쌍(84부)을 제외한 314쌍(942부)을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예비 조사를 1998년 6월 10일~15일까지 4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질문지로 1998년 7월 13일~2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청소년기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지영숙과 이영호(1994)가 개발한 가정교육 태도 측정을 위한 질문지와 왕석순(1996)이 개발한 청소년기 가족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 가정교육 태도 척도

지영숙과 이영호(1994)가 개발한 가정교육 태도 측정을 위한 질문지는 5점 Likert형의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를 묻는 24개 문항으로 크게 3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부모 자신의 의견에 대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N = 314)

변인	집 단	N(%)	변인	집 단	N(%)
아버지 연령	45세이하	111(35.4)	어머니 연령	40세이하	55(17.5)
	46~50세미만	139(44.2)		41~45세미만	169(53.8)
	51세이상	64(20.4)		46세이상	90(28.7)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5(14.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2(28.3)
	고 졸	134(42.7)		고 졸	159(50.6)
	대졸이상	135(43.0)		대졸이상	62(20.1)
아버지 직업	단순직	135(43.0)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180(57.3)
	중급직	124(39.5)		취업	134(42.7)
	전문직	55(17.5)		비취업	
가족 구성	핵가족	244(77.7)	주택소유상황	자 가	273(86.9)
	확대가족	70(22.3)		임 대	41(13.1)
자녀 성별	남학생	166(52.9)	자녀 성적	상위권	69(22.0)
	여학생	148(47.1)		중위권	187(59.5)
				하위권	58(18.5)

* 통계결과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수입, 주거지역 및 형태, 자녀개인공간)은 제외하였음

* 변인들은 집단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재분류함

* 아버지 직업의 분류 : 단순직-노동 생산직, 피고용 기술자, 자영상공인, 무직
중급직-사무직, 교사, 자영상업, 중급관리직, 전문기술직
전문직-대기업주, 전문직, 고급관리직, 기타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지며 해당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념적 태도, 교육 방법상 상황적 태도, 회피적 태도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영역별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한 결과 신념적 태도는 .84, 상황적 태도는 .71, 회피적 태도는 .73으로 나타났다.

2) 가정교육 수행도 및 수용도 척도

왕석순(1996)이 개발한 청소년기 가족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는 부모용과 자녀용의 2가지로 분류되며, 부모용에는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를 측정하는 64개 문항과 자녀용의 가정교육 수용도를 측정하는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질문지는 모두 5점 Likert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의견이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대단히 많이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교육 수행도와 수용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각 항목별 측정 내용은 1가치관 교육, 2사회공동체적 생활 교육, 3성교육, 4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 5부모-자녀 관계 교육, 6가족의 생활문화 교육, 7학습지원교육, 8진로 선택 지원 교육, 9자기 생활 관리교육, 10친구관계 교육등이다. 질문지의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한 결과 부모의 수행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96이었으며 자녀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91을 나타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은 일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F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 상관관계와 부모와 자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 관계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 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1)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교육태도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한 후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위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념적인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aired-t 검증 결과 어머니의 태도가 좀 더 신념이 있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황적인 태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aired-t 검증 결과 어머니가 좀 더 상황적인 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회피적인 태도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Paired-t 검증 결과 아버지가 약간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사회 생활에만 전념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가 각 요인별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지영숙·이영호, 1996)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중년기의 아버지들이 실제 집에서 가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한경혜, 1995).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신념적 태도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가정교육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과 고졸 이상의 학력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가정교육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

〈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교육 태도

영역	아버지		어머니		Paired-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신념적태도	3.97	0.60	4.01	0.60	-1.10
상황적태도	2.10	0.67	2.12	0.71	-0.38
회피적태도	2.18	0.53	2.17	0.57	0.22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변인	집단	아버지						집단	어머니					
		신념적태도		상황적태도		회피적태도			신념적태도		상황적태도		회피적태도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학력	중졸이하	3.72	A	2.04		2.20		중졸이하	3.94		2.06	A	2.29	
	고졸	3.97	B	2.03		2.25		고졸	4.01		2.08	A	2.24	
	대졸이상	4.04	B	2.20		2.30		대졸이상	4.09		2.30	B	2.27	
	F값	4.93**		2.34		1.24		F값	1.20		2.71*		0.37	
직업	단순직	3.84	A	2.03		2.26		취업	4.04		2.15		2.26	
	중급직	4.06	B	2.14		2.27		비취업	3.98		2.09		2.26	
	전문직	4.06	B	2.20		2.25								
	F값	5.23**		1.51		0.04		t값	0.94		0.71		0.00	
연령	45세이하	4.02		2.10		2.27		40세이하	3.90		2.23		2.39	A
	45 - 50	3.92		2.10		2.27		41 - 45	4.03		2.05		2.19	B
	51세이상	3.97		2.11		2.22		46세이상	4.03		2.18		2.30	AB
	F값	0.74		0.01		0.33		F값	0.97		1.79		4.50*	
자녀 성별	아들	3.96		2.13		2.30		아들	4.00		2.19		2.28	
	딸	3.97		2.07		2.22		딸	4.01		2.03		2.23	
	t값	0.00		0.69		1.87		t값	0.00		2.03*		1.09	
자녀 성적	상위권	4.07		2.14		2.30	AB	상위권	4.00		2.11		2.15	A
	중위권	3.94		2.04		2.22	B	중위권	4.03		2.13		2.26	AB
	하위권	3.93		2.25		2.36	A	하위권	3.94		2.08		2.36	B
	F값	1.27		2.43		2.92*		F값	0.53		0.13		3.20*	
가족 형태	핵가족	3.94		2.05		2.24		핵가족	3.95		2.07		2.26	
	확대가족	4.04		2.27		2.33		확대가족	4.02		2.21		2.29	
	t값	1.14		2.34*		1.41		t값	0.93		1.56		0.56	
주택 소유	자가	3.98		2.13		2.27		자가	4.02		2.14		2.26	
	임대	3.86		1.90		2.22		임대	3.92		1.95		2.24	
상황	t값	1.19		2.11*		0.61		t값	0.98		1.67		0.22	

* p<.05 **p<.01 ***p<.001

* D : F검증의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직종인 경우와 전문 직종인 경우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는 취업 유무에 따라서 통계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가 교육 방법상 상황적인 태도일 때는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정교육 방법상 상황에 따른 대안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더 상황에 따라 교육적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딸보다 아들인 경우에 더욱 상황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경우 핵가족인 경우와 확대가족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상황에 따른 가정교육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자가인 경우와 임대 형태로 나누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자가인 경우와 임대 형태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가 회피적 태도일 때는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집단인 41~45세 사이의 집단과 40세 이하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의 태도에 자녀의 성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

1)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교육 수행도 비교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가정교육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집단의 가정교육 수행도가 더 높게 나타난 왕석순(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교육, 조상과 저통생활 존중교육, 학습지원 교육, 진로선택 지원교육, 자기생활관리 교육, 친구관계 교육에서 유의한

<표 4>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 비교

교육 영역	아버지		어머니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치관	3.61	0.63	3.63	0.54	-0.75
사회공동체생활	3.71	0.64	3.72	0.62	-0.27
성교육	2.41	0.83	2.76	0.82	-6.74***
전통생활	3.32	0.83	3.18	0.83	3.05**
부모-자녀관계	3.79	0.64	3.85	0.65	-1.50
가족생활문화	2.87	0.80	2.90	0.75	-0.81
학습지원	2.88	0.80	3.03	0.77	-3.23**
진로선택	3.66	0.64	3.75	0.61	-2.34*
자기생활관리	3.33	1.18	3.64	1.13	-4.10***
친구관계	2.86	0.86	3.18	0.89	-5.52***
전 체	3.29	0.54	3.38	0.46	-3.19**

※ *p<.05 **p<.01 ***p<.001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가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은 아버지가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은 아버지가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교육 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거와 노동의 장이 분리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산업 사회

의 아버지들로서는 부친의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형성시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손직수, 1988) 있는 실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

변인	집단	아버지		변인	집단	어머니	
		평균(N)	Duncan's			평균(N)	Duncan's
학력	중졸이하	3.16(45)	A	학력	중졸이하	3.24(92)	A
	고졸	3.18(134)	A		고졸	3.40(159)	B
	대졸이상	3.44(135)	B		대졸이상	3.55(63)	C
	F값	10.06***			F값	8.41***	
직업	단순직	3.16(135)	A	취업 유무	취업	3.40(180)	
	중급직	3.32(124)	B		비취업	3.36(134)	
	전문직	3.53(55)	C		t값	0.67	
	F값	10.12***					
연령	45세이하	3.38(111)		연령	40세이하	3.43(55)	
	45~50	3.23(139)			41~45	3.38(169)	
	51세이상	3.27(64)			46세이상	3.36(90)	
	F값	2.24			F값	0.40	
자녀 성별	아들	3.38(166)		자녀 성별	아들	3.43(166)	
	딸	3.19(148)			딸	3.32(148)	
	t값	3.14**			t값	2.11*	
자녀 성적	상위권	3.43(69)	A	자녀 성적	상위권	3.56(61)	A
	중위권	3.27(187)	A B		중위권	3.34(196)	B
	하위권	3.18(58)	B		하위권	3.32(57)	B
	F값	3.67*			F값	5.54**	
가족 형태	핵가족	3.25(244)		가족 형태	핵가족	3.26(244)	
	확대가족	3.40(70)			확대가족	3.39(70)	
	t값	2.00*			t값	1.91	
주택 소유 상황	자가	3.32(273)		주택 소유 상황	자가	3.38(273)	
	임대	3.07(41)			임대	3.38(41)	
	t값	2.89**			t값	0.10	

* p<.05 ** p<.01 *** p<.001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학력에 따른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졸 이상인 집단과 고졸 이하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교육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과 고졸, 중졸 이하의 그룹간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정교육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직업에 따라 가정교육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형태에 따른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핵가족인 경우와 확대가족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상황에 따른 가정교육 수행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자가인 경우와 임대 형태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가정교육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중졸 이하의 집단과 고졸, 대졸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중졸 이하의 집단과 고졸, 대졸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가정교육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 직업에 따라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는 상관 없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가정교육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인 경우가 딸의 경우보다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에 따른 가정교육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수행할 경우 성적이 상위권인 자녀와 중위권, 하위권인 자녀의 수용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수행할 경우 마찬가지로 성적이 상위권인 자녀와 중위권, 하위권인 자녀의 수용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교육 수행도의 상관 관계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교육 수행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가정교육 태도 중 신념적 태도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수행도 영역은 가치관 교육,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 부모-자녀 관계교육, 가족의 생활문화교육, 진로선택 지원교육($p < .001$), 학습 지원교육, 자기 생활관리 교육, 친구 관계 교육($p < .01$), 성교육, 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p < .05$) 등에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적 태도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수행도 영역은 성교육, 가족의 생활문화 교육, 학습 지원 교육($p < .01$), 자기 생활 관리 교육($p < .05$) 등에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회피적 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지만 수행도의 가치관 교육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교육 태도중 신념적 태도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수행도 영역은 가치관 교육,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 부모-자녀 관계교육, 학습지원교육, 진로 선택 지원교육($p < .001$), 가족의 생활 문화 교육, 자기 생활 관리 교육, 친구 관계 교육($p < .01$)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변인	집단	아버지		변인	집단	어머니	
		평균(N)	Duncan's			평균(N)	Duncan's
학력	중졸이하	3.18(45)	A	학력	중졸이하	3.19(92)	A
	고졸	3.30(134)	B		고졸	3.36(159)	B
	대졸이상	3.40(135)	B		대졸이상	3.44(63)	B
	F값	5.93**			F값	9.58***	
직업	단순직	3.25(135)	A	취업 유무	취업	3.33(180)	
	중급직	3.34(124)	A		비취업	3.32(134)	
	전문직	3.48(55)	B		t값	0.26	
	F값	7.37***					
연령	45세이하	3.36(111)		연령	40세이하	3.39(55)	
	45~50	3.32(139)			41~45	3.33(169)	
	51세이상	3.29(64)			46세이상	3.29(90)	
	F값	0.57			F값	1.16	
자녀 성별	아들	3.39(166)		자녀 성별	아들	3.39(166)	
	딸	3.25(148)			딸	3.25(148)	
	t값	3.35***			t값	3.35***	
자녀 성적	상위권	3.46(69)	A	자녀 성적	상위권	3.50(61)	A
	중위권	3.31(187)	B		중위권	3.30(196)	B
	하위권	3.22(58)	B		하위권	3.24(57)	B
	F값	6.69**			F값	8.65***	
가족 형태	핵가족	3.32(244)		가족 형태	핵가족	3.32(244)	
	확대가족	3.34(70)			확대가족	3.34(70)	
	t값	0.3			t값	0.02	
주택 소유 상황	자가	3.32(273)		주택 소유 상황	자가	3.33(273)	
	임대	3.36(41)			임대	3.33(41)	
	t값	0.62			t값	0.00	

* *p<.05 **p<.01 ***p<.001

등에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적 태도와 수행도와는 전체적인 상관 관계는 없지만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에서 부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신념이 있을수록 가정교육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 본인의 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가 상승한다고 한 왕석순(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5.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의 상관 관계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경우 가정교육 태도 중 신념적 태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와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관계를 보이는 수용도 영역은 성교육, 가치관 교육, 부모-자녀 관계

〈표 7〉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교육 수행도의 상관 관계

태도 \ 수행도	아버지			어머니		
	신념적	상황적	회피적	신념적	상황적	회피적
가치관	0.39***	0.02	-0.12*	0.31***	-0.01	-0.03
사회공동체생활	0.32***	0.00	-0.11	0.24***	-0.16**	-0.09
성교육	0.13*	0.15**	0.10	0.09	0.06	0.04
전통생활	0.13*	0.10	0.02	0.04	0.07	0.10
부모-자녀관계	0.32***	0.10	-0.11	0.23***	-0.09	-0.15**
가족생활문화	0.19***	0.15**	0.01	0.17**	0.09	-0.03
학습지원	0.18**	0.15**	0.05	0.19***	0.03	-0.06
진로선택	0.35***	0.08	-0.06	0.27***	-0.04	-0.06
자기생활관리	0.17**	0.11*	0.07	0.16**	-0.02	-0.07
친구관계	0.16**	0.08	0.05	0.16**	0.05	-0.05
전 체	0.33***	0.11*	-0.03	0.29***	-0.00	-0.01

※ *p<.05 **p<.01 ***p<.001

〈표 8〉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의 상관관계

태도 \ 수용도	아버지			어머니		
	신념적	상황적	회피적	신념적	상황적	회피적
가치관	0.11*	0.03	- 0.01	0.00	0.10	0.04
사회공동체생활	0.09	-0.06	-0.06	0.10	-0.06	0.01
성교육	0.17**	0.06	0.08	0.15**	-0.02	-0.00
전통생활	0.07	-0.01	-0.01	0.02	0.05	-0.01
부모-자녀관계	0.13*	-0.01	-0.03	0.11	0.03	-0.01
가족생활문화	0.14*	-0.01	-0.03	0.09	-0.01	-0.05
학습지원	0.08	0.05	0.02	0.11	0.05	0.01
진로선택	0.04	0.06	0.01	0.01	0.11	0.06
자기생활관리	-0.11	0.01	-0.09	-0.07	0.02	-0.05
친구관계	0.10	0.06	0.00	0.04	0.12	0.10
전 체	0.16**	0.02	-0.01	0.11	0.05	0.00

※ *p<.05 **p<.01 ***p<.001

교육, 가족의 생활문화 교육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교육 태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간에 전체적으로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교육시 신념적 태도로 성교육을 할 때 자녀의 수용도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교육의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태도

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간의 상관 관계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에 대한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교육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는 유의

<표 9>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영역 구분	가치관	사회공동체생활	성교육	전통생활	부모자녀관계	가족생활문화	학습지원	진로선택	자기생활관리	친구관계	전체
아버지	0.16**	0.23***	0.04	0.39***	0.28***	0.53***	0.38***	0.22***	-0.11	0.15**	0.33***
어머니	0.21***	0.17**	0.10	0.35***	0.29***	0.51***	0.40***	0.25***	-0.09	0.24***	0.37***

※ *p<.05 **p<.01 ***p<.001

위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와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육 영역과 자기 생활 관리 교육 영역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가정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자녀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생활 문화 교육 영역에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지원 교육과 조상과 전통 생활 존중교육 영역에서도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의 경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황정규(1989)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특별히 자녀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녀들도 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얻는다고 하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 중 자신의 성적(性的) 변화로 인해 당황하거나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이미 자신의 신체적·생리적 성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들에게 성적(性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性)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 생활에서 어느 정도 가정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정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상호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 차이가 없었고 영역별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교육 수행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 가족 형태, 주택 소유 상황, 자녀의 성별과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3.26(5점기준)으로 보통 정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 자녀의 성별과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가정교육 수행도는 아버지의 경우 신념적 태도와 교육 방법상 상황적인 태도일 때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신념적 태도일 때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는 아버지의 가정교육 태도가 신념적 태도일 경우에만 상관 관계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주 지역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교육

의 주체는 부모로서 부모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질과 역할 수행 능력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부모 교육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체계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하여 충분히 가정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합하고 자녀들의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가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교육** 부분. 서울 : 저자.
- 2) 광정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3) 권이중 역(1991). **청소년 세계의 이해**. 서울 : 교보문고.
- 4) 김기수(1994). **자녀교육을 위한 철학**. 서울 : 지식산업사.
- 5) 김덕순(1982). **가정교육에 대한 자녀의 지각경향과 기대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6) 김동위(1993). **청소년의 인간화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7) 김성수 · 권일남(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8) 김성옥(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9) 김유경 · 이기영(1996).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61~75.
- 10) 김정애(1992).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11) 김충기 · 정채기(1996).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 12) 남승희(1993).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 서원.
- 13)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역(1996). **부모 - 자녀 관계**. 서울 : 학지사.
- 14) 박순황(1989). **스포크박사의 청소년 교육**. 서울 : 정음문화사.
- 15) 서병숙 · 왕석순(1996).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65~83.
- 16) 손익수(1992). **한국인의 가정교육**. 서울 : 문음사.
- 17) 송재희외12인(1997). **청소년 이데아**. 전남 : 명산원불교대학교출판국.
- 18) 신용하 ·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지식산 업사.
- 19) 유가효 · 정옥분 · 조복희(1997).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20) 유은희(1998). **가족 생활 교육 - 이론 및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편. 부모교육. 서울 : 하우.
- 21) 왕석순(1996).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2) _____(1997). **청소년기 자녀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71~85.
- 23) 이계희외3인(1994).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 서울: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24) 이영 · 조연순(1991). **아동의 세계-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서울:양서원.
- 25) 이옥 · 김향은 · 손화희 역(1995). **청소년자녀에게 이렇게하세요**. 서울: 학지사.
- 26) 장경선(1992). **가정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일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 27) 임정빈의 4인(1994).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 28) 임정빈의 6인(1996). **인간자원관리론**. 서울:학지사
- 29) 정옥분(1990). **아동학 · 가족학.대한가정학회편. 청소년기의연구**. 서울: 교문사.
- 30) 조경애(1988). **가정 환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31) 지영숙 · 이영호(1994). **가정교육의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시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80~89.
- 32) _____ (1996).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정 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77~90.
- 33) _____ (1997).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및 수행이 가정 건전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87~97.
- 34) 차종환(1996). *중고등학생의 가정교육*. 서울 : 우석.
- 35)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고서(1993). *청소년의 삶 - 고민과 대화*. 서울 :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36)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 지표*. 서울 : 저자.
- 37)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 서울 : 서원.
- 38) 황정규외 3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연구*. 서울 :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 39) Crase, S. J., Carlson, C. & Kontos, S(1981). Parent education needs and sources as perceived by parents. *Home Economics Reserch Journal* 9(3), 221-231.
- 40) Cruze, W. W.(1953). *Adolescent psychology and development*.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 41) Devereux, E. C. , Bronfenbrenner, V. & Bodgers, R. R.(1969). *Child - rearing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 A Cross National Compar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1, 257-270.
- 42)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73).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New York : Appleton - Century Crafts.
- 43) Silverberg & Steinberg(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3), 203-219.
- 44) Stinnett, N., Walters, J. & Kaye, 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 45)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46) 佳田和子(1981). 家庭教育の關する態度の研究 - 態度測定尺度の構成(第1報). *日本家庭學雜誌* 32(9), 48-55.
- 47) 高橋久美子(1977). 家庭における性教育の現狀と課題 - 大學生調査を通して. *日本家庭學會誌* 48(3), 267-277.
- 48) 河野重男・表谷正樹(1982). 21世紀人の家庭教育. *全日本社會教育聯合會篇*.
- 49) 牧野カッコ(1992). *現代家族 危機 - 現代家族の教育機能*. 東京 : 有斐閣.